

섬·역사·상처·고통... 우리 다시 깨우는 4월

탐미협 27회 4·3미술제

7월 5일부터 4·3기념관
국내의 작가 57명 출품
회화·설치·영상 등 통해
'내일(래일)' 주제 나아감

무려 7년여에 걸쳐 제주섬을 활취했던 제주4·3. 오래도록 땅 아래 금기의 언어로 잠들어있던 4·3의 참상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데 예술은 지대한 역할을 했고 미술인들도 그 일에 앞장섰다. 탐라미술인협회의 4·3미술제가 대표적이다. 1993년 탐라미

술인협회 창립 이듬해인 1994년부터 해를 거르지 않고 4·3미술제를 열어 직설의 시각 언어로, 때론 상징과 은유로 4·3이 지금, 여기에 던지는 의미를 탐색했다.

4·3 72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4·3미술제가 7월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 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매년 4월 3일에 즈음해 개최하던 4·3미술제도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날 수 없었던 탓에 일정을 늦춘 결과다.

지난해 '경야(經夜, WAKE)'란 제목 아래 새벽이 오기 전 새로운 변화와 마주한 4·3 창작 작업의 고민을 풀어냈다면 이번엔 '래일'(來日, RAIL)을 주제로 깨어난 이들이 나

아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앞으로 도래할 날을 의미하는 단어인 내일, 어딘가로 이동하는 수단이 되는 철도 레일과 같은 종의적인 주제를 통해 '상생의 삶을 위한 길을 내기와 다리 놓기' 등 4·3미술의 방향을 모색하려 했다.

이번 미술제엔 총 57명(도의 24명, 도내 30명, 해외 작가 3명)이 출품한다. 이들은 회화 30점을 비롯 조각, 설치, 판화, 사진 등을 선보인다. 1965~1966년 반공 대학살이 일어난던 인도네시아의 작가 망우 푸트라라 '풀밭 위의 흔적'(TRACES ON THE GRASS), 박아일의 '이건 너머의 일이 아니다', 방정아의 '혈석도', 좌혜선의 '몬스터 댄

싱'(monster dancing) 등 신작을 중심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일상의 평화가 위협받는 어제와 오늘, 어쩌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풍경을 붙잡았다.

탐라미술인협회는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에서 "4·3미술제는 반성이 아니라 각성"이라며 "4·3, 역사, 섬, 타자의 상처, 고통 등 어느날 문득 마주한 낯선 경험이 가져온 각성은 이전의 나를 완전히 쓰러뜨리지만 이는 다시 그리기로 행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했다.

전시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개막 행사는 따로 치르지 않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강부연의 '삼무일기-태초'

그림으로 쓴 삼무일기에 춤추는 건반

오늘부터 아트인명도암 강부연 '삼무일기' 전시 내달 4일 박정혜 독주회

제주를 품은 풍경에 피아노 선율이 내려앉는다. 강부연 작가가 운영하는 제주시 봉개동 아트인명도암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그림의 만남이다.

강부연 작가는 이달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삼무일기(三無日記)'란 제목을 단 전시를 이어간다. 지금까지 40회 넘게 개인전을 열어온 강 작가는 '삼무일기' 연작으로 그날 그날의 느낌을 일기처럼 그림에 담은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에는 '태초' 등 제주 검은흙빛이 배인 오름 등으

로 2020년 '삼무일기'를 선보인다.

전시 기간인 7월 4일 오후 7시3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박정혜의 피아노 독주회가 마련된다. 피아니스트 박정혜는 이날 '쇼팽 인 아트'란 이름으로 쇼팽의 '알조 1번', '알조 e단조', '발라드 1번', '자장가', '즉흥 환상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그가 "오름을 담은 유리창 너머 화가의 심상이 걸린 아트인명도암"에서 영감을 얻어 선곡한 작품으로 그림, 음악, 사색, 실험과 같은 애뜻한 감정을 실어 그림 너머 춤추는 건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박씨는 충신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영국 길드홀음악원 석사, 왕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디플롬 과정을 마쳤다. 문의 064)727-1253. 전선희기자



박아일의 '이건 너머의 일이 아니다' (2020)



좌혜선의 '몬스터 댄싱' (2019)

문화가 쏘다

임정진 동화작가 제주 특강

제주문학의 집(운영위원장 고운진)이 임정진 동화작가를 초청해 '2020 도민문학학교' 무료 문학특강을 연다.

이달 30일 오후 7시부터 제주문학의 집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내가 바로 도깨비야'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도깨비의 여러 모습을 통해 미래형 인재로서의 도깨비의 특성을 살펴본다. 임정진 작가는 1988년 계몽 아동문학상 동극부문으로 등단했다. 1989년 소설 '행복은 성숙이 아닌 젊어'를 시작으로 '나보다 작은 형', '땅끝마을 구름이 버스',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 '내 친구 까까머리', '맛있는 구름공' 등을 썼다. 2013년 '바우덕이'로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문의 070-4115-1038.

박물관 열린 인문학 강좌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은 성인 대상 '2020 열린 인문학 강좌-제주, 인문학을 만나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7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5개 강좌가 이어진다. 강좌별 주제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의 '차로 맺어진 우정, 추사와 초의'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조선시대 궁중의 모습을 기록하다' ▷제종길 한국보호지역포럼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는 제주 바다' ▷전경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건강 공생의 탐라문화론'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사전편찬부장의 '기록화에 담긴 지방관의 기억'으로 짜여졌다. 참가비 무료. 6월 29일부터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박물관 누리집 참고.

7~11월 매월 부모교육

제주시간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홍석운)가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제주시 거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정립하고 건강한 자녀 성장과 원만한 부모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평소 직장 생활로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제주 시민을 위한 자리다. 7월 교육(22일 오후 7시)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내 자녀 자존감 올리기와 창의력 키우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제주시간강가정지원센터 전화(064-725-8005)나 홈페이지(<http://jeju.familynet.or.kr>)를 이용하면 된다.

청소년연극제 참가팀 모집

제주 고교 연극 동아리의 끼를 풀어낼 무대가 열린다.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이상용)가 주관하는 제23회 제주청소년연극제다.

제주청소년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전국청소년연극제 제주예선을 겸한 무대다. 9월 14~18일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소극장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예선 대회를 치르고 본선 대회는 11월 16~28일 경남 밀양에서 펼쳐진다. 연극제에 참가하려면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반이나 동아리 소속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개교당 1팀만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7월 24일 오후 5시까지. 최우수상 수상팀은 전국 대회 참가 자격을 갖는다. 문의 064)755-0904.

7월 1일 제주민요보존회 성읍서 무형문화재 교류

'민요의 보물섬' 제주의 노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보존회(회장 강문희)가 7월 1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서 무관중 비대면 공연을 벌이고 그 장면을 동영상 채널로 공개한다.

문화재청의 2020년 전승자 주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된 이날 공연은 '모다들'이란 이름을 달았다. 국가무형문화재인 제주민요보존회와 평택농악보존회의 교류 행사로 코로나19에 지친 이들의 문화적 감동을 풀어주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를 취지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2시부터 성읍마을 내 초가마당(마방터)에서 진행되는 무형

문화재 교류 행사에서 제주민요보존회 회원들은 '산천초목', '용천검', '삼마동동' 등 창민요와 일노래인 '마당질소리'를 부른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평택농악보존회는 문곡, 무동놀이와 버나놀이가 특징인 웃다리 판굿을 공연한다. 평택농악은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을 일컫는 '웃다리' 지방의 대표 농악이다. 공연 장면은 제주민요보존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9월 창단한 제주민요보존회는 2017년 4월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일반인 대상 민요체험 교실, 국내외 초청 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제주사람들의 삶을 오롯이 담고 있는 제주민요의 올바른 전승과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p>주택용 태양광이 없는 우리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p>	→	<p>우리집 한달 전기요금 104,140원</p>	→	<p>30년이면 104,140원 × 12달 × 30년 = 37,490,400원</p>	<p>31,122,000원 차이</p>
 <p>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옆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p>	→	<p>옆집 한달 전기요금 17,690원</p>	→	<p>30년이면 17,690원 × 12달 × 30년 = 6,368,400원</p>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보통 주택용(저압) 한전 전기요금 기준으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결과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